KB증권, 상반기 IPO 주관실적 1위
'조단위' 상장에 하반기 경쟁도 치열

상반기 IPO 공모금액 약 1.6兆
KB증권, 4건 주관… 3218억 실적
HD현대마린솔루션 영향으로 선두
하반기에 시프트업, 케이뱅크 예정

상반기 최대어인 HD현대마린솔루션의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이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시프트업, 케이뱅크 등 조단위 기업들이 상장할 예정으로 증권사 간 순위 바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IPO 공모 금액은 약 1조6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66억원) 대비 61% 증가한 수준이다.

KB증권은 올 상반기에 4건의 IPO를 주관하며 총 3218억원의 실적을 기록, 금액면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코넥스 상장, 재상장 등을 제외한 것으로, 건수에서는 NH투자증권(7건)과 한국투자증권(6건)이 더 많았으나 공모금액이 큰 HD현대마린솔루션을 주관한 데 힘입어 KB증권이 1위에 올랐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코스닥에서만 6곳을 주관, 1922억원을 달성하며 2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에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으나 이노그리드의 상장 불발과 시프트업의 공모일정 지연으로 순위가 밀렸다.

HD현대마린솔루션 IPO를 KB증권과 공동 주관한 외국계 증권사 UBS증권과 JP모건증권 등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실적 건수는 1건에 불과하나 금액이 1797억원에 달했다.

1785억원을 달성한 NH투자증권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선두권이었던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1148억원, 960억원을 기록, 상위권에서 밀려났다.

하반기에도 조 단위 기업들이 상장을 연달아 준비하고 있어 증권사들의 주관 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연기된 대어급 시프트업의 상장이 예정된데다 케이뱅크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 본격적으로 IPO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공동 주관사로 나서고 미래에셋증권은 비바리퍼블리카와 LS이링크, 산일전기 등의 IPO에 주관사로 참여한다. 한국투자증권도 미래에셋증권과 비바리퍼블리카를 공동 주관하기로 했으며 시프트업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대표 주관사로 참여해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하반기 IPO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업들이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관 실적은 건수보다는 금액 자체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큰 건을 맡은 증권사가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S증권, 사명변경 후 경쟁력 강화 '박차'

조직개편, 경력 채용 등 실시

LS증권 사옥. /LS증권

LS증권이 사명변경 후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인력 충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S증권은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업금융본부, 글로벌영업본부, 기관영업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금융본부는 IB사업부에서 최고경영자(CEO) 직할로 소속이 변경됐다. 기업금융본부장은 전무급으로 대우가 격상됐다.

글로벌영업본부와 기관영업본부는 각각 본부명과 팀명을 변경했다. '글로벌영업본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본부'로 변경됐다. 기관영업본부의 '파생영업팀'은 업무 확장성을 표현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하는 차원에서 '패시브솔루션팀'으로 바뀌었다.

LS증권은 전면적인 조직개편 실시와 함께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형태는 경력직(정규직)이며, 채용 부문은 ▲리테일(지점업무, 디지털영업(파생상품/주식·금융상품)) ▲본사지원(홍보) ▲IT(채널시스템개발(API), 인프라운영(DMA·FEP) ▲업무시스템개발(내부통제·감사/계좌)) 등 총 8개 부문이다.

입사 지원은 오는 7일까지다. LS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실무·임원면접, CEO면접, 채용검진,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LS증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주요 사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금융, 글로벌 비즈니스, 파생상품 사업의 영업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자산운용사, '리브랜딩'으로 이목 집중

KB자산운용, 'RISE'로 리브랜딩
한화자산운용, 'PLUS'로 교체 추진
투자자 인식에 남기 위한 노력 일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150조원을 넘긴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ETF 점유율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식에 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TF 리브랜딩'과 상품 이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ETF 브랜드 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자사의 ETF 브랜드를 오는 17일부터 'KBStar'에서 'RISE'로 바꾼다. 앞서 KB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ETF 브랜드를 'KStar'에서 현재의 'KBStar'로 바꾼 바 있으며 슬로건도 '국민의 투자 솔루션'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이름 변경은 8년만으로 회사명인 KB의 이름이 빠진 시도가 눈에 띈다. 'RISE'는 2019년 KB금융그룹 경영전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KB자산운용 측은 "'KB', 'STAR' 등 여러 안을 두고 고민했으나 상승의 뜻을 담은 RISE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ETF 이름 앞에 'KB'라고 회사명을 한 번 더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KB KBStar 글로벌메타버스moorgate'처럼 표기돼 KB가 중복되는 느낌을 줄 때도 있다"며 "리브랜딩으로 좀 더 직관적인 상품명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B자산운용 ETF 순자산총액은 1조7097억원으로 전체 7.6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리브랜딩으로 ETF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화자산운용도 이달 자사 ETF 브랜드명을 기존 'ARIRANG'에서 'PLUS'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ARIRANG 코스피50'을 시작으로 줄곧 'ARIRANG' 브랜드를 써온 한화자산운용은 14년 만에 리브랜딩을 시도한 것이다.

한화자산운용 측에서는 "후보군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 중으로 ETF 브랜드명을 최종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자산운용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PLUS', 'EAGLES' 등이 언급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한화자산운용의 ETF 합산 순자산은 3조4881억원으로 점유율은 전체 2.29%를 기록했으며, 리브랜딩을 통해 업계 내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자산운용사들의 ETF 브랜드명 교체는 커지고 치열해진 ETF 시장 규모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2년 10월 ETF 브랜드명을 'KINDEX'에서 'ACE'로 교체하면서 ETF 시장에서 이목을 끈 것이 성공 사례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름을 교체하는 데 드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이 있지만 그걸 고려해도,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ETF 브랜드 자체를 투자자들에게 인지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하이투자증권,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지원조직 통합, 운용부문 개편

하이투자증권이 기존의 실·부점을 통합하고 팀 편제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지원조직의 통합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기능별로 확장되고 세분화된 조직 운영 단계를 유연하고 단순한 형태로 변경해 조직을 환기하고자 함이다.

경영전략본부의 경영기획실과 미래혁신부를 전략기획부로 통합하고, 경영관리부와 자금부는 재무부로 통합했다. 경영문화실은 기업문화부로 개편했으며 산하에 홍보팀을 배치했다.

리테일총괄의 영업지원실을 영업기획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해 대출 중개 등 시너지 영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상품전략부와 연금지원부는 상품연금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연금지원팀을 신설했으며, 디지털솔루션부와 디지털컨택트센터를 디지털정보마케팅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플랫폼기획팀을 배치해 디지털 기획·컨텐츠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영업점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 내 영업점은 폐지했으며, 강북WM센터는 서울금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가용 자본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 부문의 조직도 개편했다. 트레이딩총괄과 주식운용부를 폐지했다. 산하에 있던 PI(Principal Investment) 운용부는 경영전략본부 직속으로 배치하고, 파생운용부는 전략사업팀으로 변경해 전략기획부에 편제했으며, 장외파생팀은 홀세일본부의 패시브솔루션실에 배치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투운용, ETF 수익률 10위권 내 '최다'

TOP10 중 3개 순위권 이름 올려

올해 상반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10위권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는 국내 상장된 ETF 상반기 수익률 상위 10개(이하 TOP10) 중 3개 순위권에 이름이 올랐다. TOP10에 자사 상품을 3개 이상 포함시킨 곳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일하다.

수익률 상위권(레버리지 포함) 상품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104.81%)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60.00%) ▲ACE AI반도체포커스 ETF(59.83%) 등 3종이다.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46.19%) ▲ACE 원자력테마딥서치 ETF(47.99%)가 TOP10으로 진입한다.

최근 1년 성과도 우수하다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XBRL 주석공시 시행 지원 강화

〈국제표준 전산언어〉

내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이 2025년 하반기 금융업 상장사의 국제표준 재무보고용 전산언어(XBRL) 주석 공시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와 회계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등 대형 금융사는 내년 반기보고서부터 국제표준 전산언어사용해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8월 제출 반기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법인 중 개별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은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적용해야 한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XBRL로 재무제표 본문을 작성해 오던 상장사들은 올해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주석까지 XBRL로 공시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XBRL 주석 공시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등 두차례를 거치면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내년에 확대되는 XBRL 주석공시 대상 상장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상장사·회계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구성된 'XBRL 데이터 품질 자문그룹'을 운영해 상장사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